

80년대 들어 광주민중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한 군사정권의 교육통제는 교육모순이 심화 중첩되는 과정이었으며 반면에 저항의지도 확대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폭압적인 통제구조 속에서 고교생운동은 싹트기 시작했다. 아직까지 고등학생운동은 대중조직인 학생회의 건설과 강화라는 과제 등 여러가지 과제가 있지만 스스로 표방하는 것처럼 민족의 양심인 고등학생들은 그 어떤 집단보다도 현실적이고 진취적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들 스스로가 독립된 삶의 주체로, 당당한 사회구성원이자 조국의 동량으로 바로 서게 하는 것은 교사들과 기성세대들의 과제요 책무이다. 이들의 눈이 감겨지지 않는 한 우리 조국의 미래는 비관적이지 않을 것이다.

근래 몇년 사이에 매우 빠른 속도로 사회적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집단이 있다. 바로 고교생들이다. 교육모순의 최종적 피해자인 이들은 강력하게 단결된 힘으로 자신들에게 걸려져 있는 제반의 교육적·사회적 사슬을 깨뜨려내고 있는 것이다. 작년 이들은 연인원 30여만명이 4·19이후 30년만의 전국단위 투쟁에 돌입하기도 하였다.

이에 사회 각 부분에서는 이들 고교생들에 대한 관심이 예전에 비해 훨씬 커졌으며 그 활동에 대한 관심 또한 날로 증폭되고 있다.

여기서는 고교학생운동의 연대별 흐름과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모순의 심화와 고교생운동의 대두 (80~85년)

광주민중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한 군사정권의 교육통제는 7.30교육개혁조치로부터 시작되었다. 과외의 전면금지, 고교내신제 실시, 졸업정원제 실시, 대입본고사 폐지, 교육세의 신설, 사학비

리 척결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 조치는 보충수업·자율학습의 확대 강화, 학생의 수업시간 연장, 경쟁입시의 과열로 결과지워졌고 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 역시 학도호국단 체제에 의한 군대식의 통제방식이 강화되었다. 이는 교육모순이 심화, 중첩되는 과정이었으며 반면에 저항의지도 확대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폭압적인 통제구조 속에서 고교생들의 진출은 매우 부정기적이며 돌출적으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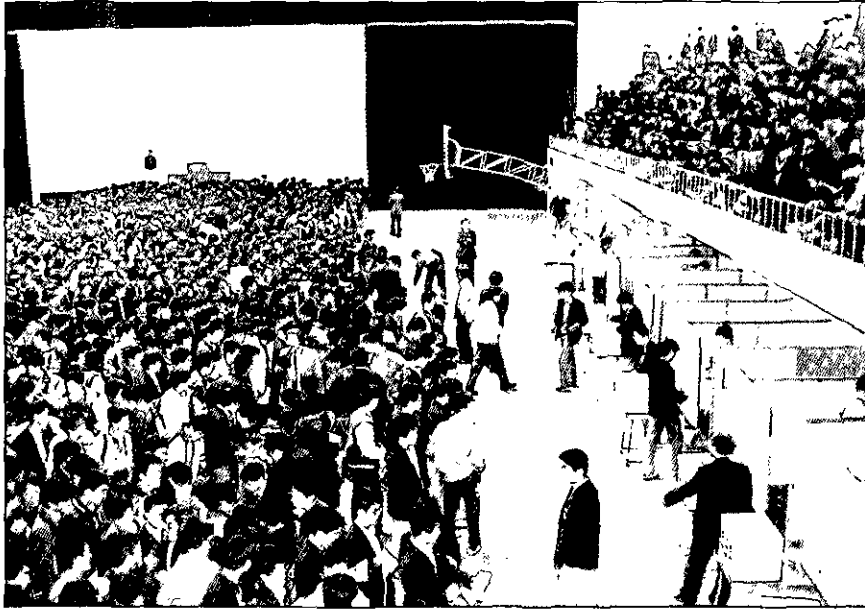
학내비리에 대한 단순 불만과 항의, 교사에 대한 폭행, 학교 유리창 깨기, 운동장 연좌시위, 수업거부 등은 80년대 초반, 고등학생들의 움직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련의 모습들이다.

80년 광주민중항쟁에서 고등학생들은 매우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비조직화된 학생들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그들이 갖는 가능성을 총체적으로 보여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80년대 고교생운동의 흐름과 성과

김 대 호/자유기고가





자율적인 학생회는
고등학생운동이 이루어내야할
최대과제로 손꼽히기도 한다.
88년 한국기독교학생운동총연맹
주최로 열린 '자율적 학생회를
위한 공청회'를 계기로
고등학생운동은 학생회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시기 초반에 학생들은 극히 소수의 학교에서 매우 소규모의 모임, 혹은 개인이 민주교사나 대학생 선배와의 관계 속에서 의식을 깨우치고 있을 뿐, 아직까지 학내에서의 목적의식적인 대중활동을 펼쳐내기에는 주체적인 역량이 미약하였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교육의 모순, 특히 사립학교의 비리들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결국 85년 복지중고와 목포여상 투쟁으로 분출되기 시작하였다.

복지중고교 투쟁은 85년 3월, 복지교 교생 전원이 잡부금 징수행위 시정, 수업결손 방지, 해직 교감·교사의 복직과 학교장 퇴진을 요구하며 수업을 거부하고 인근 야산에서 농성을 함으로써 시작되었고, 목포여상은 문희경 교사 등에 대한 탄압에 항의하여 전교생이 수업거부, 등교거부 및 시험거부 등의 집단행동으로 확대된 사건이다.

이 두 사건은 교육문제의 해결에 교

사—학생들이 연대하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 이후 교사운동과 고교학생운동의 진전을 예고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고교생운동의 성장과 학생회의 필요성 자각 (86~87. 6월)

85년의 「민중교육」지 사건은 교육운동을 조기 진압하려는 정부당국의 의도와는 반대로 도리어 불을 붙여버린 격이 되었다. 이후에 교육민주화 선언, 민교협 창립, 전교협 건설 등으로 교육문제는 전국민적으로 확대되어 나갔고, 교사운동은 더욱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흐름을 형성하였다.

교육의 민주화와 인간화를 주장하는 교사운동의 성장은 학생들의 인식과 실천의 확대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에 고등학생들은 산발적이거나 집단적인 모습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86년 5월 31일, 강원도 원주시의 원

주고등학교 전교생들은 정해진 자율학습(1학년 10시 20분, 2학년 10시 40분, 3학년 11시)을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6월 4일 원주 대성고 전교생도 자율학습을 거부하고 귀가했으며, 그 다음날 진광고 전교생도 정규수업과 보충수업만을 받고 모두 하교를 해버렸다.

또한 그달 15일에는 신일고 학생 4백여명이 운동장에서 이수호 교사의 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7월 10일에는 중대부고 2학년 학생 4백50여 명이 '두발 자유화', '자율학습 폐지', '보충수업은 희망자에 한해서'라는 등의 요구를 내걸고 운동장에서 연좌농성을 벌였고, 87년 3월에는 전남 완도군 노화중고 3학년 학생들이 비민주적인 학교운영과 반교육적인 학생지도의 척결을 요구하며 농성하였으나 경찰력이 개입하여 '진압'되었다.

이와 같은 시위와 농성은 매우 많은 학교에서 발생되었으나 일반적으로 몇가지의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즉각적이고 돌발적인 문제제기에 머물 뿐, 연속되는 이후의 활동이 보여지지 않고 있다.

둘째는 학생회와 같은 일상적인 자기 조직에 대한 지향이 잘 드러나고 있지 않다.

셋째는 요구와 주장이 학내민주화 요구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과 한계는 87년 3월 진주 대아고 학생들의 투쟁에 의하여 극복되기 시작하였다.

진주 대아고는 3월 16일, 부당정수원 보충수업비 전액 환불과 직선제 학생회 재취를 요구하며 이틀간의 시위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보충수업비 환불대책위원회'와 '대아고등학교 직선제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신들의 투쟁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요구사항을 구체화시켰다.

진주 대아고 학생들의 요구사항

1. 부당정수 전액을 환불하라.
2. 교장, 이사장, 서무과장은 즉각 퇴진하라.
3. 선생님들을 과다한 수업에서 해방시켜라.
4. 자주성, 창조성, 민주성을 기르는 인간교육을 원한다.
5. 직선제로 학생회를 되찾자.
6. 횡령한 학생회비 전액을 내놓아라.
7. 매점 운영을 학생회로 돌려라.

진주 대아고는 이 싸움에서 쌓여진 역량으로 이듬해 훨씬 더 폭발적인 2차 투쟁을 전개한다.

이 진주 대아고 투쟁은 다음의 몇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싸움을 통해서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힘을 축적해내고 있다는 점.

둘째, 학생대중조직인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이 잘못된 교육현실을 비판하고 당당히 자기주장을 펼 때 정계가 따르기도 한다. 사진은 아이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징계에 항의하며 학교에서 농성하는 학부모.

필요성을 집단적으로 자각하고 있다는 점.

셋째, 요구사항의 수위가 학내민주화라는 관점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 전후의 시기는 은전의 형태로나마 각 학교의 학도호국단 체제가 학생회 체제로 그 틀을 전환하게 되면서 학생 자신들의 대중조직인 학생회에 대한 타진을 조심스럽게 시도하기 시작하는 시기였던 것이다.

6월항쟁과 사학재단비리 혁명투쟁(87. 6~12월)

6월항쟁의 여파는 고등학생들에게도

파급되었다. 전국에서 일어났던 시위에 다수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자기 조직의 현실에 눈뜨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경험과 역량은 이후 각 단위 학교활동의 확대에 매우 중요한 힘으로 작용하였다.

항쟁의 종료와 함께 7월 1일에는 경기도 파주여중고 싸움이 터져나왔다. 이 싸움은 이후 서울의 정화여상, 명신고, 경기도 동두천여상, 경남 통영상고, 전북 고창북고, 충남 공주 신풍중고 2차투쟁 등 사학재단비리척결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싸움들은 그 동안 누적되어왔던 사학재단의 비리들이 연쇄적으로 폭발한 것이지만 학생들의 모습은 이전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첫째,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투쟁이 촉발되었던간에 학생회라는 대중조직 건설의 요구가 보다 명료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 시기의 투쟁일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8. 24 충남 신풍중고생 2차 시위, 자율적 학생활동 보장 등 6개항 관철
9. 1 전북 고창북고학생, 학생회 주도하에 재단비리척결, 학생회 자율권 요구 시위
석관고등학교, 어용학생회 불인정, 직선제 학생회 재취 시위
9. 17 경기 파주여중고 학생회칙 개정안 관철
9. 22 신풍중고, 보복조치 중지와의 합의를 이행 등을 요구하며 3차 시위
9. 23 광주 대동고, 학생회 직선제 재취
9. 25 파주여중고, 개정된 회칙에 따라 직선제로 학생회 구성
명신고, 2천명 운동장에서 시위 농성 시작



10. 5 충남 서령고교, 1천4백여 명이 총학생회 부활, 이사장과 교장 퇴진 등 12개 조건을 내걸고 시위
 10. 14 광주 석산고, 직선제 학생회 재취

사학비리 척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교사와 함께 참여하며 큰 역할을 했다. 6월 항쟁 직후 피주여중고에서 사학정상화 싸움이 터져나온 후 사학재단비리 척결을 요구하는 서울 정화여상, 명신고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사진은 청구상업학교 교사, 학생의 서울시교위 농성장면.

둘째, 투쟁이 매우 장기화되고 그 과정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학생들의 의식이 폭발적으로 고양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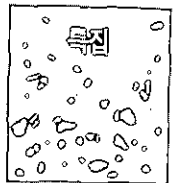
이의 모범 사례로는 파주여중고를 들 수 있다. 근 1백일 이상 투쟁을 지속하면서 학생들은 초기 학내에서의 항의부터 시작하여 가두시위, 시교위 농성,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무력진압, 정당농성에 이르기까지 의식과 실천에 매우 다양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명신고는 10월 12일 신임교장 취임과 중간고사를 거부하고 문교부에서 장관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이틀 후, 재차 육백여명이 문교부에서 학교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나 그중 2백91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가 훈방되었다. 정화여상 역시 11월 4일 2천여명이 수업을 거부하고 투쟁에 돌입하여, 3학년의 졸업시험 백지동맹 결의, 이후 9일의 1·2부 전교생의 백지동맹 결의, 졸업생 천여명의 격려방문, 명동의 가두시위, 시교위 농성 등으로 투쟁이 확대되었다.

이렇듯 투쟁의 확대는 곧 인식의 확대일 수밖에 없었으며, 투쟁의 장기화는 역량의 축적으로 귀결되었다. 학생들은 학교당국과 학생이라는 대치선에서 이미 문교당국과 학생이라는 대치선으로 뛰어넘고 있었던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 힘이 일상적이며 지



속적으로 활동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 역량으로 축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까지는 단위 학교별로 고립분산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활동을 담보할 역량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고립분산성은 공개단체들이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일정하게 극복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호남민주교육실천협의회, 호사단 고등학생 아카데미 서울지부, 한국고등학생기독교운동총연맹(KSCM), 그리고 푸른나무이야기 모임 등이 결성되거나 재가동되면서 활동에 합류하였다. 그중 호사단 서울지부가 주최한 11월 8일의 '중·고생을 위한 학생의 날 기념제'는 근 1천5백여명의 중고생이 참석한 최초의 공식 대중집회로서 이후 공개단체 활동의 본격적인 출발점으로서 기록될 만하다.

그러나 이 시기 고등학생운동의 가장 충격적인 모습은 역시 대통령선거를 전후로 보여지는 고등학생들의 '부정선거 규탄투쟁'을 들 수 있다. 그중 광주지역의 대규모 가두시위와 서울지역 고등학생연합(이하 서교련)의 명동성당 농성투쟁은 모든 민족·민주운동 세력이 선거의 패배로 말미암은 실외와 충격에 때져 있을 때 기성세대의 각성을 촉구하며 들고 일어났던, 매우 조직적이며 정치적인 양상을 띤 사건이었다.

광주의 고등학생들은 현 정부를 반민족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학우들이 모든 시위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면서 마스크와 운동화를 착용할 것, 최후의 1인까지 싸울 것 등의 행동지침까지 내리면서 수천명이 가두에서 격렬하게 시위를 하였으며 서울에서는 5월 19일 3백여명의 고등학생들이 명동성당에서 '서교련' 결성식을 갖고 군사독재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이때 이들이 낸 성명서의 내용은 학생들이 이미 반외세·반독재의 입장에 정확히 서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일련의 투쟁들은 고등학생들이 개별 학교 단위의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문제에 매우 조직적으로 대응하였다는 점에서 고등학생운동에 정치운동의 성격을 가미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다.

서교련 투쟁은 다분히 돌출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학내의 대중적인 기반이 없었다는 자기 한계를 드러내면서 곧 와해의 길로 치닫게 되지만 학생들은 "단위학교의 조직건설과 역량강화를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는 평범하면서도 매우 소중한 진리를 실천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고등학생운동은 대중운동으로 전환할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게 된다.

대중적인 확산과 보충수업·자율학습 철폐투쟁(88. 1~89. 3월)

88년은 고등학생운동이 그야말로 '운동'으로 불릴 수 있을 정도의 흐름과 양상으로 전개된 중요한 해라고 평가될 수 있다. 그간 산발적으로 분출됐던 각개의 투쟁과 요구들이 점차 전국단위에서 통일적으로 모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의 중요한 계기는 88년 2월 29일, 한국고등학생기독교운동총연맹(KSCM) 주최로 열린 '자율적 학생회를 위한 공청회'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자율적 학생회의 기본조건으로 직선제, 학생회칙 개정, 학생회비의 자율적 관리사용을 지적하고 모든 학생들이 이들의 쟁취를 위해 활동하자고 천명했다.

이것은 계기로 그간의 투쟁들은 하나의 집결점을 찾게 되었고 학생회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학생들

은 학생회 건설의 전단계로서 학교단위의 실천 소도인을 광범위하게 결성하기 시작하였고, 이 실천단위는 이후 각종의 싸움에 큰 힘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 시기의 투쟁은 이전의 자연발생적인 것과는 달리 매우 목적의식적으로 준비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중의 가장 대표적인 투쟁이 바로 '보충수업·자율학습 철폐투쟁'이다.

5월, 문교부가 보충수업·자율학습 허용방침을 발표한 이후 '보·자·투'는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광주지역의 고교생들은 6월 4일 호남민교협에서 주최한 제3회 민주교실(보충수업·자율학습 철폐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보자투를 전개하기로 결의한 후, 13일 대동고에서 천여명의 학생들이 시위한 것을 필두로 보자투를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시위는 전남지역으로 확산되어 단 일주일 만에 30개 이상의 학교가 적어도 '1~2학년 보충자율학습 폐지 또는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라는 성과를 얻어내었다.

이런 와중에 보자투는 서울의 잠실여고 학생의 투신자살 학우대책요구 농성과 결합되면서 학생들의 자주적인 생존권 수호투쟁으로 고양되기 시작하였다. 6월 18일 광주와 서울에서는 호남민교협, 광주전남교협, 여성단체, 서교협이 각각 '보자철폐 촉구대회 및 자살학생 위령제'와 '참교육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서울에서는 호사단과 KSCM이 연합주최한 '자살학생 추모제 및 교육정상화를 위한 고등학생 결의대회'에 1천여명의 고등학생들이 참가하여 전국단위의 투쟁양상을 보였다. 그밖에 청주, 부산, 대구 등지의 투쟁도 역시 같은 수위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보자투'는 일시적인 승리를 안겨주었을 뿐이었다. 이것은 임시경쟁구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보자투'는 교사-학생-학부모의 이해가 일정 정도 상이할 수밖에 없기에 싸움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 이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과를 장기적으로 담보해낼 학생들의 조직역량이 아직은 취약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고등학생운동은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연대'의 움직임이다. 이후 조직되는 '광주지역 고등학생협의회'에 관한 논의도 이 시기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보자투는 형식적으로는 각개 학교단위 투쟁 양상을 띠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일정하게 연대투쟁적 양상

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학생단체 연합행사도 역시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보자투 외에 이 시기에 전개된 아래와 같은 투쟁은 또 하나의 굵직한 흐름을 형성하면서 이전의 모습보다도 훨씬 더 조직적으로 단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5. 19 서울 북공고 학생 8백여명, 학생회 직선제 보장, 학생회비 사용내역 공개, 인격적 대우 등을 요구하며 농성.
- 5. 27 진주 대아고 2차투쟁, 학교측의 학생회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 1천 7백여명의 학생들이 교장 공개사과, 학생회 탄압 중지, 학생회비 사용내역 공개 등 8개항을 내걸고,

학생들은 자율적 학생회의 기본조건으로 직선제, 학생회칙개정, 학생회비의 자율적 관리사용 등을 주장한다. 지난 10월 6일에는 학생회비 운영에 관한 공청회가 경찰들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 열리기도 했다.



- 졸업생, 학부모와 함께 연대투쟁
- 6. 1 동두천여상 8백여명, 직선제 학생회 보장, 학내비리 척결 요구하며 터미널에서 가두시위
 - 6. 20 광주 옥천여상, 학내비리척결투쟁
 - 6. 21 전북 정주 동신여상 학생 1천3백여명, 학생회비 사용 공개, 직선제 등 14개항을 요구하며 시위
 - 9. 8 구미 금오여고 학생 4백여명, 금오공대 체육관에서 직선제와 재단비리척결 등을 요구하며 농성
 - 9. 13 충남 정의여중고 1천4백여명, 특별경영체제 해체, 재단비리 척결 등 5개항을 내걸고 농성
 - 9. 16 수원 유신고 전교생 2천여명, 군사문화 청산, 교장·교감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이하 투쟁 생략)

이외에 각각의 공개단체와 사범대 학생 주최의 고등학생 대상의 집회와 행사가 확장되는 모습 역시 주목할 만한 것들이다.

스승징계 저지 투쟁과 연합조직 건설(8.9.5~12월)

5월 28일, 전교조의 출범은 죽어가는 교육, 악화되어가는 교육모순에 대한 교사들의 근본적 문제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교사와 학생이 4·19 이후 근 30년만에 투쟁 속에서 결합되기 시작한 것이다.

전교조를 지지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면서 전개되었다. 전국 30여개 학교에서 연인원 35만여명이 참가한 이 싸움은 교사와 학생이 눈물겨운 결합을 하기에 충분하였다. 전교조 사수투쟁은 낙서, 유인물, 대자보, 농성, 가두시위, 수업거부 등의 일반적인 방식 이외에도 함께 노래 부르기, 박수쳐주기, 꽃 달아주기, 책상치며 고향자르기, 발구르기, 도시락 싸아놓고 단식수업하기, 밤샘공부, 선생님 지키기 결사대 조직, 종이비행기 날리기, 리본달기, 징계위원회 저지 등의 다양하고 기발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위/전교조를 지지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은 '선생님을 돌려달라'는 구호처럼 다분히 심정적인 차원에서 전개되었지만 이름 계기로 전국적인 연대조직이 형성되었다.

옆/지난 9월에는 춘천 원주지역 학생들이 고교경쟁입시부활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 시기의 투쟁은 '선생님을 돌려달라' '우리는 선생님을 사랑합니다'는 등의 구호에서 볼 수 있듯이 다분히 심정적인 차원에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교사운동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과학적으로 형성되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기에 투쟁도 목적의식적인 면보다 자연발생적인 것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그동안 형성되어온 운동역량은 '전교조'라는 전국 단위의 동일한 메개를 중심으로 연대조

직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형성된 광주지역 고등학생협의회, 목포지역 고등학생연합, 나주지역 고등학생연합, 부산지역 고등학생협의회, 마산·창원 고등학생협의회 등은 그 주요한 결과물들이다.

아직까지 진정한 의미의 대중적인 연합조직은 아니지만 이 조직들이 보여준 투쟁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한 예로 광주협이 주최한 '전교조 사수 결의대회'에 근 2만여명의 고교생이 참가하여 가두시위를 벌인 것은 고등학생운동이 어떻게 대중운동으로 진전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것은 그간 각 지역에서 만들어졌었던 (그후 모두 탄압으로 와해되었던) 바른학생회쟁취연합이나 동부지역 고등학생연합 등과 같은 소모임 수준의 결합체와는 또 다르게 발전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조직들은 지속적인 활동을 담보할 중심역량과 그를 뒷받침할 조직화된 대중역량이 부족한 형편이어서 앞으로의 활동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교조 사수투쟁은 고등학생들이 교육의 주체로, 그리고 민족민주운동의 한 주체로 자기모습을 드러냈던 투쟁이었다. 이 투쟁은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대거 각성하게 되는 계기였으며, 일천하지만 집단적인 투쟁을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90년대에 들어서서 고등학생들은 춘천·원주지역에서 수천명이 고교경쟁 임시부활 반대투쟁을 벌였고, 두명의 학생들이 각각 투신과 분신자살로 교육모순에 항거하였다.

아직까지 고등학생운동은 대중조직인 학생회의 건설과 강화라는 초미의 과제를 중심으로, 교사·학생간의 결합, 대중활동력의 강화 등 여러가지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스스로 표방하는 것처럼 '민족의 양심'인 고등학생들은 그 어떤 집단보다도 헌신적이고 진취적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들 스스로가 독립된 삶의 주체로, 당당한 사회구성원이자 조국의 동량으로 바로서게 하는 것은 교사들과 기성세대들의 과제요 책무이다. 이들의 눈이 감겨지지 않는 한 우리 조국의 미래는 비관적이지 않은 것이다. ■

